

“학교 냉난방기 오염 심각... 변기 수질보다 심해”

광주시의회 교육위 용역보고회 ... 고등학교가 가장 심각

광주 일선 학교 교실 및 급식실의 냉·난방기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는 15일 오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교육청 각급 학교 교실 및 급식실 냉·난방기 관리 실태에 따른 공기질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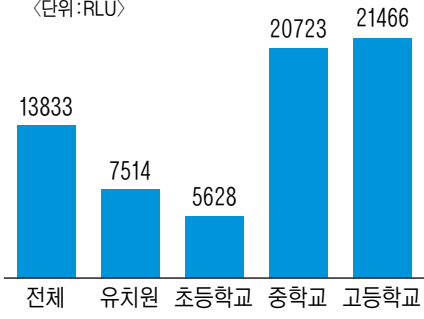
용역 수행업체인 장강디자인과 (사)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올해

10월 29일부터 두 달간 관내 초·중·고교 30곳의 냉·난방기 세척 여부 및 상태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30개 학교 냉난방기의 평균 오염도는 1만3756RLU(Relative Light Unit·오염도 측정 단위로 수치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음)로 화장실 변기 내 수질(620RLU)보다 오염도가 2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실(행정실 포함)은 8119RLU, 급식실은 1만4571RLU, 일반 교실은 1만

■ 냉·난방기 학교급별 오염도 평균



6336RLU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정심 위원장은 “행정실보다 급식실과 일반 교실의 냉·난방기 오염이 훨씬 심각하다”며 “특히 일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0만RLU 이상까지 측정되는 등 오염된 공기 속에서 학생들이 식사하거나 수업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은 “냉·난방기의 열변환기 오염도를 측정할 결과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하이 집어 삼킨 스모그

15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고가도로 위 하늘을 뒤덮은 스모그. 전날 상하이시 환경당국은 대기 오염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모그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을 최고 시책은 U대회 성공 개최

우수시책 설문조사 결과 성과부문 1위 뽑혀

창의 혁신부문 '건설공사 설계 예고제 도입'

광주시 올해 최고의 시책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였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우수 시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계 U대회 성공 개최가 성과 부문 1위에 올랐다.

하계U대회 성공 개최는 지난 2009년 5월 대회 개최 결정 이후 6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신속 경기장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인 재정운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대회로의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특히, 메르스 확산이라는 악재를 효율적으로 통제해 광주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 ▲시민 품에 안겨준 제2수원지 ▲메르스 차단 ▲호남 고속철도 개통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이 2~5위에 올랐

다.

2위를 차지한 '시민 품에 안겨준 제2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지난 34년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제2수원지를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혁신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건설공사 설계예고제 도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생명의 골든타임, 희망의 끈을 붙잡아라(자살 예방 네트워크) ▲협업해

일하는 발산마을 재생사업 ▲시민참여형 도시기록계획 수립 ▲광주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상위 5위에 들었다.

'건설공사 설계예고제 도입'은 건설공사 설계 완료 전 주요공법 자재 등 설계내용 공개로 지역 이미지나 행정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응모한 성과 부문 33건, 창의 혁신 부문 17건 등 50건을 접수해 1차로 실·국 주무과장 심사를 통해 21개 사업을 선정했다.

시민, 공무원, 시의원, 출일기자 등 3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대 시책을 확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광주서 열린다

해외 성공 사례 바탕

광주역 활성화 등 논의

도시재생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지 오래다. 무분별하게 옛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등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옛 도심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도시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시재생을 화두로 삼고 있다. 도시팽창으로 급속하게 옛 도심이 침체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광주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을 17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해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광주역 주변 활성화 등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한국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일반시민,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

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일본 치바대학 정지영교수는 '일본의 도심지 주거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미국 컬럼비아대 김세용 겸임교수는 '미국의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주제 발표한다. 장수아 프랑스 국립건축사는 '유럽의 대규모 문화시설을 통한 도심재생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연구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정체 및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수요증가로 생겨난 새 경향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이웃과 협정에 의한 주민주도의 새로운 정비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건축협정과 도시재생이다.

토론에는 안용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유병권 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오세규 전남대 교수, 이영석 광주대 교수, 남승진 동아인재대 교수, 박흥근 포유건축사 대표가 참석한다.

한편, 지난 2010년 도시재생 추진단을 구성한 광주시는 그동안 채택된 도심 낙후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흥 팔영산 치유의 숲에 노르딕워킹 코스 운영

전남도-독일 협회 업무협약

전남도는 15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에서 독일 노르딕워킹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팔영산 치유의 숲에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세계적 노르딕워킹 코스를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박병중 고흥군수, 노르딕워킹 본고장인 독일의 노르딕워킹협회(독일 NWI) 카트린 부르스터 회장, 한국 노르딕워킹 협회(노르딕워킹 IK) 강지원 총재가 참석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2017년 개장 예정이다. 고흥 영남면 일원 100ha에 280억원을 들여 노르딕워킹을 통한 건

강건가와 지역 향토자원인 유자·석류를 이용한 산림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르딕워킹은 1930년 핀란드 스키 선수들의 여름철 훈련 방법으로 고안됐으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40여 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걷기에 비해 상·하체 근육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두 배 이상의 열량이 소모되며, 빠르게 걷는 기본자세를 배울 수 있어 다이어트와 자세 교정에 효과적이다. 또한 허리와 무릎 등의 관절 부담 감소로 통증 완화와 척추기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간단한 요령만 습득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계약원가 심사 강화로 498억 절감

전남도가 계약심사를 통해 올 한해 49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간 예산절감액은 6800억원을 넘는다. 전남도는 15일 “전남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해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5829건(9조 6453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7.1%에 해당하는 6885억원을 절감했다. 공사에서 6102억원, 용역에서 706억원, 물품에서 76억원을 각각 아꼈다. 계약심사 절감비율은 지난 2012년 7.9%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2013년 7.3%, 2014년 6.2%, 2015년 4.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질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er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드름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